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19일 (음력 8월 10일) 수요일



주택시장 안정?

정의당심상정 의원은 17일 정부의 9·13 주택 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중부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오히려 2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 공급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밝히며 '21일 공급 대책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중부세 강화를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유한 것과 관련, '중부세는 세제'라며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는 큰 원칙에서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1 관세 제2 관세, 0.1%로 관세 대책으로 투기 수요하고 숨바꼭질 하듯 단기 대책을 내놓아 결국은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고 말했다.

부동산 단기 대책 나열보다는 큰 정책 차원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반값 아파트·반의반값 아파트도 제안했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평양회담 지켜본 광주시민들
“감격스럽다” 곳곳서 환호성
“개성공단 재가동 성과 기대”



1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남북정상회담 TV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는 실질적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텔레비전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시민들은 회담 의제와 일정에 대해 대화하며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한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회담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다.

대통령 전용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하자 텔레비전 주변은 인파로 붐볐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중계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항으로 직접 영접을 나오자 시민들은 “감격스럽다”, “회담이 잘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민들은 남북의 정상 내외가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화면을 사인으로 담았다. 인사를 나누던 두 정상이 포옹을 하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이 환영행사에 나온 북한 주민에게 악수를 청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중계화면에서 눈을 못 떼던 한 시민은 다급하게 집을 쫓겨 버스 승차장으로 향하

기도 했다.

시민들은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원했다.

정계남(70) 씨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다”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반갑고 기대되는 일이고 민족적인 경사다”면서 기대감을 표했다.

염소연(24·여) 씨는 “남북관계에 난제가 많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과거 갈등과 불신부터 극복하는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행 버스를 기다리던 하영자(69·여) 씨는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회담결과도 좋을 것이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과 자유왕래 등의 회담성과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오재도(51) 씨는 “18년 전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서로 손을 맞잡았던 장면이 떠올랐다”면서 “어렵게 성사된 남북대화의 기회를 잘 살려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전남도,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비전 전 세계에 알린다

오늘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서 홍보

전남도는 20일부터 3일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에서 솔라시도의 스마트시티 비전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솔라시도 스마트시티는 서남해안권 전체의 관광자원 친화경에너지, 첨단농업단지, 자율자동차 인프라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한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를 지향한다.

지난 2006년 기업도시로 선정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의 구성지구로 조성된다.

전남도는 사업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스마

트시티 서밋 아시아’ 참가를 준비해왔다.

이 행사에는 한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등 참여하고 도시로는 코펜하겐, 헬싱키, 바르셀로나, 포르투, 세종, 부산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솔라시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조속한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최적지임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전시관은 국내 도시관 중 최대 규

모다, 인공태양 조형물, 미러룸 등 특색 있는 전시물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솔라시도 스마트시티의 미래상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치했다.

백지상태 신도시서는 장점을 기반으로 스마트관광, 스마트팜, 태양광발전, 마이크로그리드, 자율자동차 등의 미래 기술이 조화롭게 구현되는 사람 중심 미래도시를 전남형 스마트시티 솔라시도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양수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개막식에서 “솔라시도가 차별화된 콘셉트로 미래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에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